

유아교육·보육 발전을 위한 학부모 의견 및 요구

이미화 선임연구위원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 1,500명을 대상으로 유보 발전을 위한 학부모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재 기관을 선택한 이유는 ‘접근성’, ‘인력’, ‘프로그램의 질’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이용시간에 따라 부모의 비용부담을 다르게 하는 지원체계 개편에 대한 의견으로는 국가가 무상지원 한다는 응답이 45.0%로 가장 많았으나, 국가가 일정시간 무상지원 후 소득에 따라 차등부담한다는 의견도 약 38%로 높게 나타났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원화에 따른 장점으로는 교육과 보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많았고, 단점으로는 학부모들이 동일한 연령임에도 이용시간 및 비용차이가 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가장 우선적으로 동일하게 되었으면 하는 항목으로 정부지원 금액을 1순위로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은 부모비용 부담, 교사자격 기준, 이용가능연령, 교사처우 수준, 지도감독체계 순으로 나타났다.

1. 서론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 간의 격차를 해소하여 0~5세 영유아의 발달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의 선택권 및 편의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유보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일반적

특성 및 기관 이용 특성, 기관(시설) 선택 이유와 불편사항, 이용시간과 비용, 교사 및 프로그램, 그리고 유보일원화 관련한 학부모 의견, 응답자의 가구특성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 1,500명이며, 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 모집단(2,042,983명)의 특성을 반영한 비중이다.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교육부·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이미화·최은영·최윤경·김은영·유해미·이혜민·이세원이 2013년도에 수행한 ‘유아교육·보육 통합 관련 학부모 의견조사’ 내용 중 일부를 재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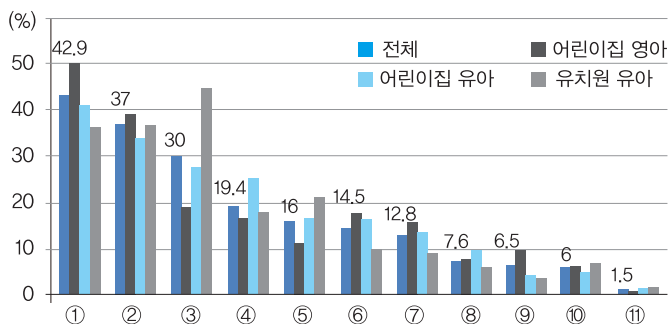
2. 현재 이용기관에 대한 의견 및 요구

가. 이용기관 선택 이유

현재 기관을 선택한 이유로 집에서 다니기 편한 ‘접근성’ 응답이 약 4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원장 교사의 자질 우수’ 응답이 37%, ‘프로그램의 질’에 관한 응답이 30.0%로 나타났다. 그 외에 비용, 시설 설비, 이용시간, 급간식이 10% 이상으로 응답되었으며, 선택 가능한 기관이 이곳 밖에 없었다는 응답은 6%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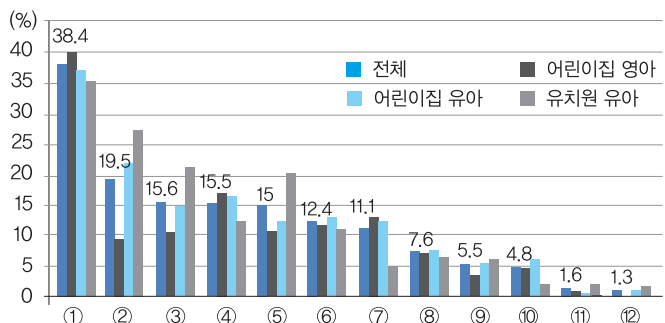
나. 이용기관 불편사항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의 불편사항을 두 가지 선택하게 한 결과(중복응답), ‘불편사항 없음’이 약 38%로 가장 많았고, 기관별로 보면 어린이집 영아(41.6%), 어린이집 유아(37.4%), 유치원 유아(35.5%)의 순으로 불편사항이 없다는 응답을 보였다. 그 외 항목에 대해서는 10%대의 비교적 고른 응답으로 ‘비용 부담’(19.5%), ‘토요일 휴일 돌봄 부족’(15.6%), ‘제한된 운영시간’(15.5%), ‘학급내 영유아 수가 많음’(15.0%)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이 유치원에 비해 ‘불편사항 없음’의 응답이 다소 높았



주: ① 집에서 다니기 편리 ② 원장/교사 자질 우수 ③ 프로그램 질 우수 ④ 비용 적절 ⑤ 시설·설비 우수 ⑥ 원하는 시간만큼 이용 가능 ⑦ 급·간식 질이 좋음 ⑧ 형제(자매)가 함께 이용 ⑨ 학급 내 영유아수가 적절 ⑩ 선택 가능 기관이 이곳 뿐임 ⑪ 기타

[그림 1] 현재 이용기관 선택 시 주요 고려사항(중복응답)



주: ① 불편사항 없음 ② 교육비·보육료 부담 ③ 토요일·휴일 돌봄 부족 ④ 운영시간 제한적 ⑤ 학급 내 영유아 수가 많음 ⑥ 등하원이 불편 ⑦ 시설·설비 미비 ⑧ 프로그램 질 낮음 ⑨ 급·간식 질 낮음 ⑩ 원장/교사 전문성 부족 ⑪ 형제(자매)가 함께 이용 못함 ⑫ 기타

[그림 2]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 이용의 불편 사항(중복응답)

고, 유치원의 경우 비용부담과 토요일 휴일 돌봄 부족, 학급내 유아수에 대한 불편사항 응답이 높은 반면, 어린이집은 제한된 운영시간, 시설 설비 미비, 원장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불편사항에 대한 응답이 높아 차이를 보였다(그림 2 참조).

취업모의 경우 비취업모에 비해 제한된 운영시간과 등하원 불편에 대한 응답이 많은 반면 비취업모는 비용부담과 토요일·휴일 돌봄 부족, 프

로그래의 질에 대한 불편 응답이 취업모에 비해 다소 많았다. 모의 취업여부에 따라 영유아 자녀의 기관이용시 요구하는 내용과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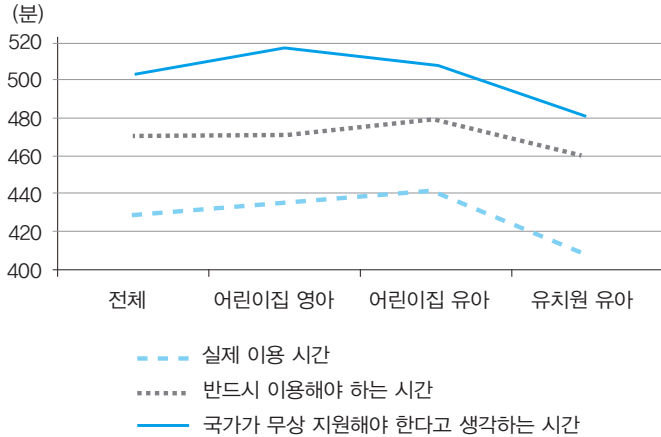
취업모만을 대상으로 자녀를 기관에 보낼 때 겪는 애로사항을 평정하게 한 결과, 전체적으로 ‘(약간/매우) 그렇다’의 애로사항 응답이 절반수준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도 ‘④예상치 못한 상황(아

근, 아이가 아픈 경우 등) 발생 시의 기관이용 어려움’에 대한 애로사항 응답이 52.3%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⑤저조한 부모참여’(51.8%), ‘③내 아이만 늦게 남는 상황’(49.4%)에 대한 불편한 마음에 대한 응답이 높았다.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불편사항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저소득가구일수록 비용부담에 대해, 고소득가구일수록 토요일·휴일 돌봄 부족에 대한 불편사항 응답이 많았다. 이상 ‘기관선택 이유’와 ‘현재 기관이용의 불편사항’을 살펴본 결과, 연령별, 기관유형별, 모 취업과 가구소득 등 영유아 가구의 사회경제적·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각기 상이한 요구를 가지고 그 수요에 최대한 충족하는 기관을 선택함을 알 수 있다.

다. 기관 이용 시간

교사배치와 보육료·교육비 등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중요 요인인 ‘이용시간’에 대한



[그림 3] 실제/필수/국가무상지원 이용시간

논의를 위해, 영유아부모에게 서비스 이용시간에 대한 실수요를 조사하였다(그림 3 참조).

조사 결과, 현재 이용시간은 평균 7시간 9분(429분), 비용부담을 하더라도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시간은 평균 7시간 50분(470분), 국가가 무상지원하는 시간 평균 8시간 23분(503분)으로 나타나 영유아부모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실수요시간을 초과하는 긴 이용시간에 대한 정부지원 요구도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유아 자녀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간에 대한 적절성을 질문한 결과, 적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4.2%로 다수였고, ‘길다’는 응답(11.5%)과 ‘짧다’(14.3%)는 응답이 별 차이가 없는 가운데, 짧다는 응답이 다소 많았다.

실제 이용기관의 도착시간을 조사한 결과 영아의 경우, 등원시간이 빠른 집단과 늦은 집단이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아기 기관이용 수요자의 이용시간에 대한 구체적 수요가 상이함을 보여준다.

실제 이용기관의 하원시각을 조사한 결과 영아

로그래의 질에 대한 불편 응답이 취업모에 비해 다소 많았다. 모의 취업여부에 따라 영유아 자녀의 기관이용시 요구하는 내용과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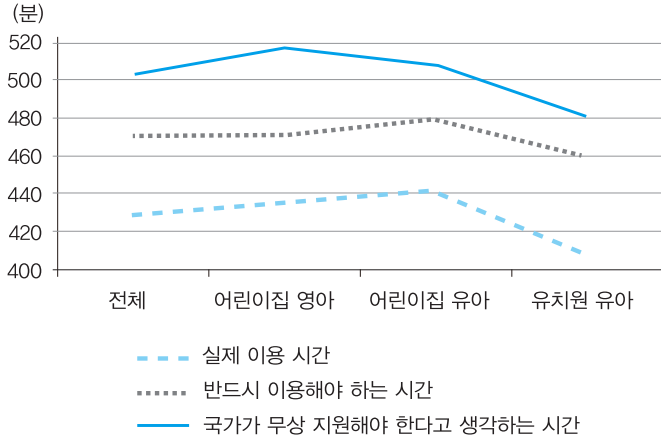
취업모만을 대상으로 자녀를 기관에 보낼 때 겪는 애로사항을 평정하게 한 결과, 전체적으로 ‘(약간/매우) 그렇다’의 애로사항 응답이 절반수준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도 ‘④예상치 못한 상황(아

근, 아이가 아픈 경우 등) 발생 시의 기관이용 어려움’에 대한 애로사항 응답이 52.3%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⑤저조한 부모참여’(51.8%), ‘③내 아이만 늦게 남는 상황’(49.4%)에 대한 불편한 마음에 대한 응답이 높았다.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불편사항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저소득가구일수록 비용부담에 대해, 고소득가구일수록 토요일·휴일 돌봄 부족에 대한 불편사항 응답이 많았다. 이상 ‘기관선택 이유’와 ‘현재 기관이용의 불편사항’을 살펴본 결과, 연령별, 기관유형별, 모 취업과 가구소득 등 영유아 가구의 사회경제적·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각기 상이한 요구를 가지고 그 수요에 최대한 충족하는 기관을 선택함을 알 수 있다.

다. 기관 이용 시간

교사배치와 보육료·교육비 등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중요 요인인 ‘이용시간’에 대한



[그림 3] 실제/필수/국가무상지원 이용시간

논의를 위해, 영유아부모에게 서비스 이용시간에 대한 실수요를 조사하였다(그림 3 참조).

조사 결과, 현재 이용시간은 평균 7시간 9분(429분), 비용부담을 하더라도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시간은 평균 7시간 50분(470분), 국가가 무상지원하는 시간 평균 8시간 23분(503분)으로 나타나 영유아부모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실수요시간을 초과하는 긴 이용시간에 대한 정부지원 요구도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유아 자녀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간에 대한 적절성을 질문한 결과, 적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4.2%로 다수였고, ‘길다’는 응답(11.5%)과 ‘짧다’(14.3%)는 응답이 별 차이가 없는 가운데, 짧다는 응답이 다소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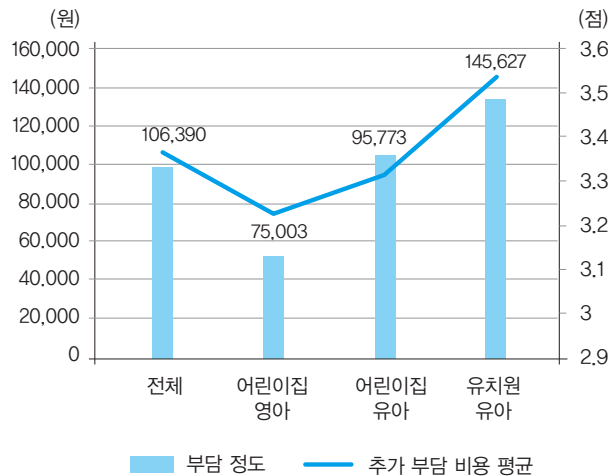
실제 이용기관의 도착시간을 조사한 결과 영아의 경우, 등원시간이 빠른 집단과 늦은 집단이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아기 기관이용 수요자의 이용시간에 대한 구체적 수요가 상이함을 보여준다.

실제 이용기관의 하원시각을 조사한 결과 영아

의 경우, 특히 0세반에서 하원시간이 늦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기관 이용의 실수요가 높은 집단의 구체적인 특성을 파악하여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비용추가부담

현재 자녀가 다니는 기관에 (정부지원금 외에) 매월 가계에서 추가 부담하는 비용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추가비용을 지불한다는 가구가 약 80%로 높은 수준이다. 반 연령이 높아질수록 추가비용 부담가구의 비율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나, 0세반과 1세반에서도 각 31%, 60%로 높은 수준이며, 3세반에서 가장 높다. 국공립 기관보다 사립/민간 기관이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고, 유치원의 경우는 공립(52%)과 사립(96%) 유치원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그림 4 참조). 정부지원금 외, 추가비용을 부담한다는 응답



[그림 4] 현재 자녀가 다니는 기관에 (정부 지원금 이외) 매월 가계에서 추가 부담하는 비용 및 부담 정도

자는 약 80%(1,167명)로 구체적 비용을 조사한 결과, 5~15만원을 지불한다는 응답이 약 60%로 가장 많았다. 추가비용에 대한 부담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적당하다'가 32.6%, '부담된다'는 비율이 40.2%로 나타났다. 추가비용 부담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대한 의견을 두 가지 선택하도록 한 결과(중복응답), 정부지원(56.4%) 응답과, 정부가 정한 수납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 부모가 부담한다(53.4%)는 응답이 비슷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부모가 추가비용을 부담한다는 의견도 32.0%로 나타났다.

마. 교사 및 프로그램

자녀 담임선생님이 갖추었으면 하는 자질과 최소학력에 관한 조사 결과, 담임선생님의 자질로는 학부모의 82.1%가 인성을 꼽았고, 그 다음은 아이와 상호작용을 잘하는 교사가 73.8%로 나타났다. 담임선생님의 최소학력은 학부모의 49.9%가 전문대학 졸업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4년제 대학 졸업이 33.2%로 나타났다. 그 외에 교사 관련 조사에서는 자녀 담임선생님의 담당 적정 영유아 수를 8~15명이라고 대답한 부모가 37.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4~5명으로 조사되었다. 희망하는 기관의 교육 및 보육 내용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학부모의 52.7%가 인성지도 강화를 꼽았으며, 그 다음은 놀이중심활동

(27.5%), 다양한 특별활동 제공(22.9%), 기본생활 습관지도(19.5%) 순이다. 반면 현행 교육 보호 내용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5.0%에 불과했다.

3. 유보일원화에 대한 의견 및 요구

가. 유보이원화의 장점과 단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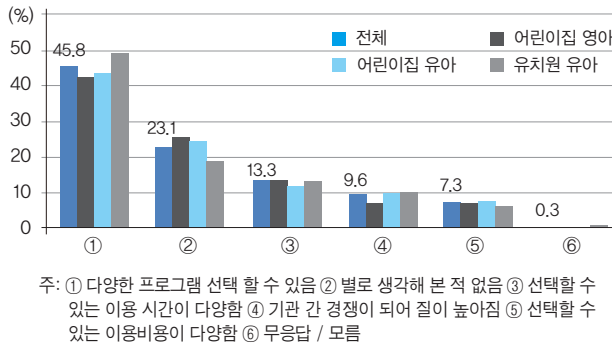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원화에 따른 장점으로 학부모의 45.8%가 교육과 보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단점으로 학부모들은 동일 연령임에도 이용

시간 및 비용 차이가 난다(29.8%)는 점을 꼽았다(그림 5,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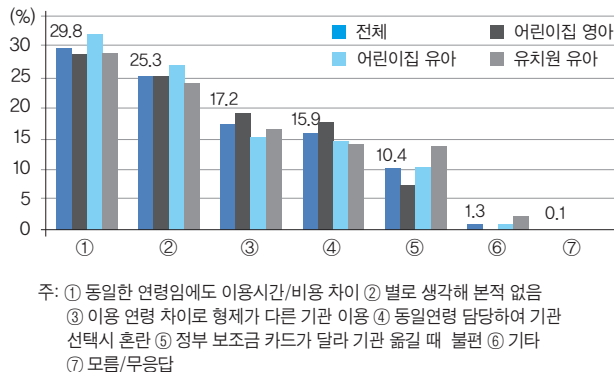
나.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요소별 동일 운영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동일하게 운영되었으면 좋겠다고 동의하는 정도는 4점 척도에서 지도감독체계가 3.60, 교사처우수준이 3.52, 정부지원금액 3.50, 시설설비기준 3.47, 그리고 교사자격기준 3.44 순으로 나타났다(표 1, 그림 7 참조).

다. 학부모가 원하는 동일 운영 요소



[그림 5]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원화에 따른 장점



[그림 6]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원화에 따른 단점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가장 우선적으로 동일하게 되었으면 하는 항목으로 학부모들은 정부지원금액(17.7%)을 1 순위로 꼽았고, 그 다음은 부모 비용 부담(16.7%), 교사 자격 기준(14.9%) 이용 가능 연령(9.2%), 교사처우수준(14.9%), 지도감독체계(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 연령별로 차이가 나타났다는데 4세반의 경우 정부지원금액 보다 교사 자격기준의 응답률이 더 높았고, 설립유형별로 보면 공립유치원, 민간 어린이집, 사립유치원은 정부지원금액을 가장 우선적으로 동일하게 해주길 원하는 학부모가 많았던 반면 사립유치원은 교사 자격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은 부모 비용 부담을 우선적으로 동일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학부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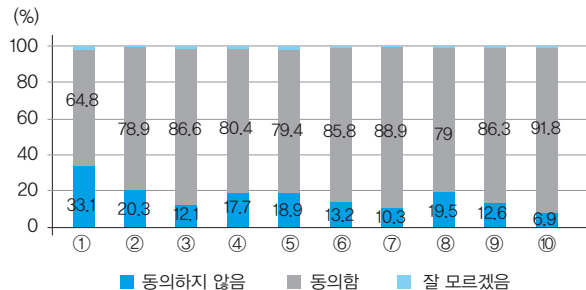
〈표 1〉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동일하게 운영되었으면 좋겠다고 동의하는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①전혀 동의하지 않음	②별로 동의하지 않음	①+②	③약간 동의함	④매우 동의함	③+④	잘 모르겠음	계(수)	평균
이용가능연령	9.3	23.8	33.1	28.0	36.8	64.8	2.1	100,0(1,500)	2.94
부모비용부담	4.3	16.0	20.3	27.5	51.4	78.9	0.8	100,0(1,500)	3.27
정부지원금액	1.8	10.3	12.1	23.0	63.6	86.6	1.2	100,0(1,500)	3.50
방학유무	3.5	14.2	17.7	26.6	53.8	80.4	2.0	100,0(1,500)	3.33
이용시간	3.1	15.8	18.9	27.1	52.3	79.4	1.7	100,0(1,500)	3.31
교사자격기준	2.2	11.0	13.2	26.9	58.9	85.8	1.1	100,0(1,500)	3.44
교사처우수준	1.8	8.5	10.3	25.1	63.8	88.9	0.8	100,0(1,500)	3.52
교사-아동 비율	4.2	15.3	19.5	25.2	53.8	79.0	1.5	100,0(1,500)	3.31
시설설비기준	1.9	10.7	12.6	25.2	61.1	86.3	1.0	100,0(1,500)	3.47
지도감독체계	1.5	5.4	6.9	24.7	67.1	91.8	1.4	100,0(1,500)	3.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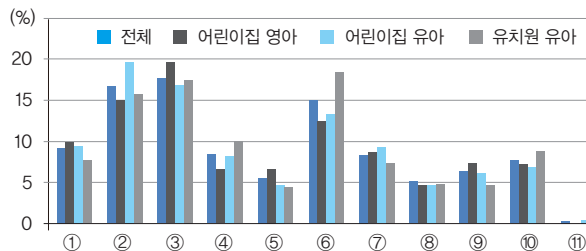
소도시와 군지역은 전체적인 경향과 유사하게 정부지원금액을 우선적으로 동일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응답이 많은 반면, 특별/광역시시는 부모비용부담을 동일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았다. 모 취업상태별로 정리하면 취업모는 정부지원금액(16.9%), 비취업모는 부모 비용 부담(18.9%)이 가장 우선적으로 동일하게 되기를 희망하였다. 가구소득별로 보면 300만원 이상 고소득가구일수록 부모비용부담과 정부지원금액에 대한 응답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림 8 참조).

한편 2순위에서는 기관과 보육연령별로 보면, 어린이집 유아와 유치원 유아의 학부모는 전체 경향과 유사하게 정부지원금액을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 어린이집 영아의 학부모는 시설설비 기준에 가장 많이 응답했다. 반연령별로도 다소 차이는 있는데 0세반은 교사대 영아비율, 1, 2, 3세반은 시설설비 기준, 4세반은 부모 비



주: ① 이용가능 연령 ② 부모비용부담 ③ 정부지원금액 ④ 방학유무
⑤ 이용시간 ⑥ 교사자격기준 ⑦ 교사처우수준 ⑧ 교사-아동 비율
⑨ 시설설비기준 ⑩ 지도감독체계

〔그림 7〕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동일하게 운영되었으면 좋겠다고 동의하는 정도



주: ① 이용가능 연령 ② 부모비용부담 ③ 정부지원금액 ④ 방학유무(연간 운영 일수) ⑤ 이용시간 ⑥ 교사자격기준 ⑦ 교사처우수준 ⑧ 교사대 영유아비율 ⑨ 시설설비기준 ⑩ 지도감독체계 ⑪ 없음

〔그림 8〕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가장 우선적으로 동일하게 되었으면 하는 항목(1순위)

용 부담, 5세반은 이용시간을 2순위로 가장 많이 꼽았다. 지역규모별로 보면 특/광역시는 교사 자격 기준(14.6%)을, 중소도시는 정부지원금액(14.1%)을, 군지역은 시설설비기준(17.2%)을 가장 많이 응답하여 각각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가장 우선적으로 동일하게 되었으면 하는 항목을 종합한 결과, 정부지원금액이 31.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교사 자격 기준(27.6%), 부모 비용 부담(25.5%), 지도 감독체계(18.8%), 교사처우 수준(18.3%), 시설설비 기준(17.5%)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 결론

수요자 중심의 유보일원화 추진을 위한 학부모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학부모들은 현재 이용기관에 대해 접근성, 교사의 자질, 프로그램의 품질을 중요시 하였다. 그중에서도 수요자의 기관선택 이유는 가구의 사회경제적·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관을 선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육기관은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특성은 살리되 불편 사항은 각 기관 내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학부모는 추가비용에 대한 부

담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지만 일정 한도 내에서 교육과정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추가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교사의 질과 관련해서는 일정수준의 학력과 훌륭한 인성의 보유를 요구하고, 교육·보육과정에서 인성지도 및 놀이중심 활동을 선호함을 알 수 있다. 유보통합에 관한 학부모의 의견조사 결과 현재와 같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 체계에서는 동일 연령임에도 이용시간 및 비용차이가 크다는 부분이 가장 문제시되므로 다양한 동일 운영 요소의 점진적이고, 부분적인 통합이 요구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정부지원금액, 부모비용부담, 교사자격기준에 대한 통합을 우선적으로 요구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영유아의 학부모는 현재 유보 분리의 장점인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용시간 선택 등을 살리면서 동일연령 이용시간과 비용의 차이나 이용 연령 차이로 인한 형제가 다른 기관을 이용하는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유보일원화의 개념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재정과 행정적 낭비를 최소화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되, 부모추가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모색되어야겠다.